



박준태

# KIA, 젊은피가 끓는다



신인 외야수 박준태, 두산·롯데전 끝내기 주인공

강한 어깨·찬스때마다 안타...김다원 등과 '신 블루칩'

신인 외야수 박준태가 '호랑이 군단'의 블루칩으로 상종을 치고 있다. 두 차례의 결정적인 끝내기 장면이 주인공이 되면서 자신의 이름 석 자를 확실하게 알렸다.

#7월3일 두산전  
양현종이 선발로 등판했던 이날. 안치홍의 3점포와 김주찬의 솔로포까지 나오면서 여유롭게 KIA의 승리로 마무리 되는 것 같았다. 그러나 6-2의 리드 상황에서 마무리 어센시오가 대타 정수빈에게 조구에 홈런을 맞았다. 2사에서는 발빠른 최주환을 볼넷으로 내보내면서 KIA 덕아웃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타석에는 민병현이 들어섰고, 방망이를 떠난 총알 타구가 3루수 박기남의 옆을 빠져 외야로 향했다. 주자 최주환이 3루에 안착하면서 두산으로 분위기가 기울려는 찰라, 2루에서 극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발 빠른 민병현이 넉넉히 2루에 도달하는 것 같았지만 공이 먼저 베이스에 도착하면서 경기가 종료된 것이다. 7회 대주자로 들어갔다가 좌익수를 맡은 박준태가 만든 천금 같은 보살이었다.

#7월12일 롯데전  
초반만 해도 KIA에게 일방적인 흐름이었다. '호랑이 킬러' 유민을 상대로 1회부터 5개의 안타를 뽑아내며 3-0. 그러나 이후 결정적 순간마다 방망이가 빛나가면서 분위기가 역전됐다.

3-1로 앞서 4회 1사에서 선발 임준섭을 교체하며 승부수를 던졌지만 돌발 사구에 경기는 예측불허의 소가 됐다. 8회 부상 복귀전에 나선 송은범이 강민호의 머리에 공을 맞추면서 퇴장

을 당했다. 어센시오가 한 박자 빠르게 투입됐고, 롯데는 포수의 갑작스런 부상엔 최준석에게 마스크를 씌웠다. 이래저래 타순이 꼬이면서 롯데 투수 송승준과 장원준까지 타석에 섰다.

잔루 행진 속 경기는 결국 4-4, 12회 말 연장까지 갔다. 김민우의 볼넷과 이성우의 희생번트로 만들어진 1사 2루. 박준태가 타석에 섰다. 상대는 150km는 기본으로 찍는 파이어 볼러 최대성. 조구를 지켜본 박준태는 2구째 직구를 잡아당겨 우전 안타를 만들었다. 우익수 손아섭의 송구실책으로 3루에 있던 김민우가 홈을 밟으면서 경기는 5시간 3분에 걸친 빙속의 혈투는 KIA의 5-4 승리로 끝났다.

박준태는 "타석에 들어가기 전에 코치님께서 공을 하나 미리 보라고 말씀을 하셨다. 상대가 워낙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이기도 하고 공을 본 뒤 타이밍을 빨리 가자고 생각했다. 앞선 타석에서도 타이밍이 늦어져 빠르게 가져간 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팀 승리에 역할을 하게 돼서 기쁘다"고 밝혔다.

될성부른 떡잎이었다. 스프링 캠프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박준태는 중도에 부름을 받았다.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연습경기 중반에 투입돼 3루타를 때려내며 화끈한 신고식을 치른 뒤 강한 어깨로 선 감독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리고 신종길의 부상 속에 얻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타이거즈의 뜨거운 아이론으로 떠올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덕아웃 특특

### 롯데 최준석, 포수하라 타자하라 "공이 안보여"

▲"잘하는 선수가 제일 예쁘지."

덕아웃에 공·수에서 만점활약을 하며 무서운 기세를 이어가고 있는 안치홍의 이야기가 나왔다. "안치홍이 기특할 것 같다. 칭찬 좀 해주시라"는 얘기에 선동열 감독은 "감독 눈에는 잘하는 선수가 제일 예쁘지"라며 절절 웃었다. 안치홍은 선 감독이 부담한 첫 해인 2012년 10승 10탈수 기록을 세웠다. 지난 시즌에는 공격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선 감독은 "핸들링 등 기본적인 것이 부족한데 그동안 노력을 정말 많이 했다"고 평가했다. 또 "공격에서도 볼을 골라내는 게 지난 2년보다 좋아졌다. 쳐서만 나가려는 모습이어서 볼에 자주 손이 많이 나갔는데 이 부분이 좋아졌다. 나쁜 볼을 잡아내면서 유리하게 승부를 하고 있다"고 기특한 제자의 칭찬을 이어갔다. 최근에는 칭찬할 선수가 늘었다. "기회만 주면 잘할 선수다"며 주목을 했던 박준태가 아무런 활약을 하지 않자 감독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있다. 선동열 감독은 "너무 예쁜 그들이"다.

▲"공이 안보이다래요."

13일 훈련 시간. 전날 빙속 혈투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두 선수가 한 자리에 만났다. 행운의 승리를 거둔 KIA 투수 김진우와 포수 겸 좌익수 최준석의 대화 시간. 김진우는 "(최준석이) 어제 너무 힘들었다고, 타석에 서니까 공이 보이지 않더라"고 하더라"며 웃었다. 전날 경기에서 롯데는 포수 자리를 놓고 진땀을 뺐다. 용덕현의 교체 선수로 들어갔던 강민호가 송은범의 공에 머리를 맞으면서 플레이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 결국 포수 경험이 있는 최준석을 자리에 앉히며 급한 불을 껐다. 포수로 입단을 하기는 했지만 2005년 이후에는 마스크를 쓴 적이 없던 최준석. 그 사이 몸무게도 많이 늘어서 최준석에게는 고된 시간이 됐다. "손도 많이 아프다고 한다"며 웃던 김진우. 최준석은 김영식·김승희의 공에 이어 강속구 투수 최대성의 공까지 받아냈다. 손이 아플 만했다. 그래도 리그를 대표하는 대도 김주찬의 도루까지 저지하며 최준석은 '대형 포수'로 화제의 주인공이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6월에 빛난 사나이' 안치홍



KIA 내야수 안치홍이 광주기자단이 선정하고 구단 지정병원인 밝은안과21병원이 시상하는 6월 월간 MVP에 선정돼 13일 광주 롯데전에 앞서 시상식을 가졌다. 안치홍은 6월 한 달 22경기에 출전, 73타수 29안타(7홈런) 25타점 19득점 타율 0.397의 뛰어난 성적을 거뒀다. 시상금 100만원 중 50만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했다.

〈KIA 타이거즈 제공〉

### 광주FC, 3연승 무산

안산 경찰청에 0-1 패

광주 FC의 3연승 도전이 실패로 끝났다. 광주 FC가 지난 12일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열린 안산 경찰청과의 18라운드 경기에서 0-1로 패했다.

전반 3분 만에 안산 서동현에게 선제골을 허용한 광주는 이후 유효슈팅 10개를 기록하는 등 강한 공격으로 상대를 압박했지만 상대 골키퍼 유현의 잇단 선방에 막히며 득점에 실패했다.

대구전을 시작으로 고양까지 이어졌던 골퍼레이드가 끝나면서 광주의 3연승도 무산됐다.

광주 남기업 감독대행은 "초반 실점이 아쉽지만 실점 이후 페이스를 찾으면서 원하는 경기를 했다. 골을 넣지 못한 것을 빼고는 만족스러운 경기였다. 경기력이 좋아지고 있는 만큼 다음 FA컵 경기에서 광주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광주는 오는 16일 성남 FC와의 FA컵 8강 티켓을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그리핀, 3타차 우승

야마하 한국경제 한국프로골프 선수권

매수 그리핀(31·호주)이 야마하 한국경제 제57회 한국프로골프(KPGA) 선수권대회(총상금 10억원) 우승을 차지했다.

그리핀은 13일 인천 스키야드72 골프장 하늘코스(파72·7086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만 6개를 추가하며 6언더파 66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20언더파 268타의 성적을 낸 그리핀은 2012년 하이원 리조트 오픈과 지난해 SK텔레콤 오픈에 이어 KPGA 코리아투어에서 개인 통산 3승째를 거뒀다. 17언더파 271타의 단독 2위 문경준(32·휴센)을 3타 차로 따돌렸다. 3라운드까지 14언더파를 기록해 문경준과 함께 공동 선두를 달린 그리핀은 이날 전반에만 버디 5개를 몰아치며 일찌감치 단독 1위로 치고 나간 끝에 우승 상금 2억원의 주인공이 됐다. 이 대회에서 외국 선수가 정상에 오른 것은 2008년 제52회 우승자 앤드루 맥켄지(호주) 이후 그리핀이 6년 만이다.

코리아투어 첫 우승에 도전한 문경준은 전반 9홀에서 보기 1개로 오히려 1타를 잃는 바람에 우승 경쟁에서 멀어졌다. 3라운드까지 11언더파를 친 박상현(31·메리츠금융그룹)이 전반에 4타를 줄이며 그리핀을 추격했지만 그리핀의 전반 페이스가 워낙 좋았다.

문경준은 후반 9홀에서 불이 붙었다. 13번 홀(파4)까지 4개 홀에서 버디 3개를 낚으며 추격에 시동을 건 문경준은 16번 홀(파3)에서 약 8m 거리의 버디에 성공하며 그리핀을 2타 차로 압박했다. 그러나 그리핀 역시 같은 홀에서 침착하게 1타를 줄이며 다시 3타 차로 달아나 한숨을 돌렸다.

연합뉴스